

## 조선시대 남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디자인개발 연구

여 상 미 ·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f Adapting Men's Pyoeui of Chosun era to Wedding Dress

Sang-Mee Yeo · Ok-Lyun Park<sup>\*</sup>

Instructor, Dept. of Living Science,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iving Science, Kyung Sung University\*

(2002. 2. 8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dapting Korean beauty to the design of Wedding dress. For this study, Chosun Men's Pyoeui(coat) were considered first. Pyoeui had the courtesy and variety. They were Jobog, Danryeong, Chulrik, Dabho, Jangeui, Aegjueumpo, Jigryeong, Changeui, Changos, Jungchimag, Hagchangeui, Simeui, Dopo, and Durumagi.

Pyoeui were considered the formative features and the costume beauty describing Shape, Color, Material, Pattern, and Ornament. And Pyoeui were considered the instances which were adapted their formative features to Wedding dress. The formative features appearing on Wedding dress were merely applied the outward shap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utward features and the costume beauty about Men's Pyoeui for adapting Wedding dress. And then the continuous attempt is needed to adapt the beauty of Korean costume to the design of Wedding dress. .

Key Words: Pyoeui(표의), Wedding dress(혼례복), formative features(외형적 특징),  
beauty of Korean costume (한국 복식미)

#### I. 서 론

한국적 미를 지닌 복식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수 있다는 주제하에 한국적 미를 표현한 한국패션

의 국제화는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혼례복에서는 아직도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대부분 착용되며 현구고레시에만 착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적 미를 표현한 혼례복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국적 미를 지닌 혼례복의 디자인을 위하여 전통복식중 조선시대 표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표의중에는 전통혼례에 착용된 경우도 있으며, 또 표의가 의례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혼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표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활용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미를 현대화하기 위해 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연구하며 그것을 모티브로 혼례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연구가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조선시대 표의중 먼저 남자표의에 대해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고찰하고 남자 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과 박물관 등의 유물사진을 통해 조선시대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조사하였다. 사용된 유물은 조복 3점, 단령 33점, 철릭 28점, 답호 9점, 장의 17점, 액주음 13점, 직령 23점, 창의 13점, 창옷 11점, 중치막 11점, 학 창의 8점, 심의 4점, 도포 14점, 두루마기 6점 등 총 193점이었다. 이중 출토유물은 141점, 유물은 52점이다. 남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조사는 마이웨딩, 한국의 미, 아름다운 우리옷, 우리옷사랑, HANBOK 등의 잡지를 참고하였다.

## II.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대한 고찰

### 1. 남자표의의 정의

표의는 문자 그대로 곁에 입는 옷옷으로, 이 표의가 『三國史記』에 ‘포’의 뜻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개념화된 용어로 볼 수 있다. 한국복식의 특성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의례적인 의식에 치중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표의에서 나타난다.<sup>1)</sup>

조선시대 남자의 표의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의례복식인 제복·조복·공복·상복 등과 일반표의인 심의, 답호, 철릭, 창의, 장의, 액주음포, 직령, 도포, 두루마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의는 제례의식에 입었던 제복을 제외한 것으로, 이는 혼례의식을 위한 복식개발이기 때문이다. 또한 왕족들이 입었던 상복과 조복도 고찰대상에 넣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서민들도 혼례때는 관리들이 입던 상복을 입음으로서 그날만은 자신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인륜지대사라하여 인생에 있어서 혼례는 가장 경사스러운 의례로 왕족들의 복식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복식의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복식의 조형요소인 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 소재 등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능하다. 장신구도 복식의 미적 완결을 위해 심미적인 의도로 착용했으므로<sup>2)</sup> 이를 중심으로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

#### 1) 형태

형태는 표의가 나타내는 전체 윤곽선과 구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소매형태의 경우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된 형태는 표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착수는 소매통이 진동보다 작은 경우이며, 통수는 진동과 수구의 폭이 일정한 경우이며, 활수는 소매배래가 활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는 소매이다. 쿵각지형인 경우 소매가 넓으면서 진동아래 파임이 없이 수구쪽으로 가면서 둥글어지는 경우이며<sup>3)</sup>, 광수는 소매가 넓으면서 진동아래에 사선으로 파임이 있고 수구가 전부 트여진 것이고, 두리소매는 수구가 위에서 18~22cm가량 터지고 밑으로 막힌 것이다<sup>4)</sup>. 도식화는 다음과 같다.

두리소매인 경우 옷길리와 소매통의 비율이 1:0.3~0.5로 나타났으며 착수인 경우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의의 전체 윤곽선은 넓고

<표 1>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나타난 형태

형 태		표 의														
		조 복	상 복	철 릭	담 호	장 의	액 주 음	직 령	창 의	창 옷	중 치 막	학 창 의	심 의	도 포	두 루 마 기	
깃 모 양	등근깃		•													
	이중칼깃			•	•											
	칼깃			•	•		•	•	•	•	•			•		
	반달깃			•								•		•	•	
	목관깃					•			•	•					•	
	당코형목관깃	•							•	•	•			•		
	방령												•			
	직령												•			
소 매 모 양	합입				•											
	착수형		•	•		•	•	•	•						•	
	반수형				•											
	무수(無袖)형				•											
	통수(筒袖)형						•								•	
	활수(滑袖)형		•						•		•			•		
	공각지형		•	•			•	•	•				•			
	광수형	•	•	•				•	•							
	두리소매		•	•			•	•	•		•	•	•	•		
	거들지 달림					•										
구 성 선	수구 襟달림	•										•	•			
	수구 襟밖으로 달림												•			
	분리형 소매			•			•									
	옆트임	•		•	•		•	•	•	•	•					
	뒤트임				•				•			•		•		
	겨드랑아래 당무					•										
	겨드랑아래 잔주름						•									
	뒷자락													•		
	무		•		•											
	옆선에 부분 襟장식				•							•				
	옆선 겨드랑아래까지 襟장식	•														
	도련 襟장식	•			•							•	•			
뒤트임 襟장식											•					
여 밈	깃 襟장식	•										•	•			
	상의하상(上衣下裳)분리			•									•			
	여러 폭의 裳			•									•			
	하상(下裳)의 주름			•												
	전단후장(前短後長)		•		•		•	•								
	전장후단(前長後短)						•			•						
	전후동장(前後同長)	•	•	•	•	•	•	•	•	•	•	•	•	•	•	
	고름	•	•	•	•	•	•	•	•	•	•	•	•	•	•	
	매듭		•	•						•						
	고리				•		•									
장 식	흉배		•													
	보		•													
	襟에 가는 선 테두리	•														
	폐슬·후수	•														

실루엣 : A형, H형

구성법 : 겹, 훈, 누비, 슌

봉재법 : 감집질, 훈질, 박음질, 공그르기, 3땀상침, 2땀상침



<표 3>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나타난 소재

소재	표의	조복	상복	철릭	답호	장의	액주읍	직령	창의	창옷	중치막	학창의	심의	도포	두루마기
사주			●	●	●							●			●
단		●	●	●	●	●	●	●	●	●	●		●	●	●
라		●		●					●						
초			●												
면			●	●		●	●	●	●					●	●
저			●	●			●	●			●		●	●	

4) 문양

문양은 직물에 시문된 지문과 흉배·보·후수 등에 나타난 문양을 사용하였다. 고찰 결과는 <표 4>와 같다.

무관에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비금(飛禽)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문이 나타난 직물은 거의 견으로, 그 중에서 사에 시문된 문양은 연화문(6)·운문(7)이 있

<표 4>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나타난 문양

문양	표의	조복	상복	철릭	답호	장의	액주읍	직령	창의	창옷	중치막	학창의	심의	도포	두루마기
地紋	팔보운문		●	●	●										
	칠보운문		●	●					●						
	연화문			●		●									
	수파문			●											
	운문		●	●		●		●	●						
	보상화문					●									
	당초모란문					●									
	소화보문						●								
	칠보여의주문			●											
	국화문			●											
보·흉배	학		●												
	기린		●												
	호랑이		●												
	용		●												
	월문		●												
	화염문		●												
	운안		●												
	공작		●												
	운문		●												
	수파문		●												
삼산문		●													
불로초		●													

표의에 나타난 지문은 주로 운문과 보문이 함께 어우러진 칠보운문과 팔보운문이었다. 상복은 보나 흉배에서도 문양이 많이 나타났는데 왕족에 쓰인 보에는 주로 오조룡문이 많이 나타났다. 문관과

고, 그 외는 단에 시문된 문양이었다. 면에 관해서는 중국 목면에는 문양이 있으나, 우리 나라 목면에는 문양이 없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이유는 직조기술의 미흡과 엄격한 문양금제로 궁중복식이나

백관복식 등 고급 견직이 아니면 직문이든 부금문 이든 시문을 하지 않는 것<sup>8)</sup>이라 한다. 철릭은 지문이 다양하게 나타난 표의로 이는 융복으로서의 철릭의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여 길상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였으리라 생각된다.

5) 부속품

조선시대 남자표의는 관모, 대, 화나 혜 등을 반드시 사용하였다. 관모에는 조복에 썼던 원수관<sup>9)</sup>과 금관<sup>10)</sup>, 상복에 썼던 익선관<sup>11)</sup>, 사모<sup>12)</sup> 그리고 갓으로 나타났다. 대는 의복을 정리하고 색채를 사용해 신분을 나타내었다.

3.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

1)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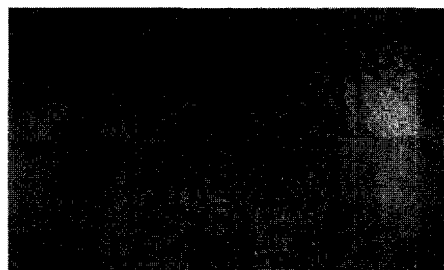
조선시대 남자표의에서 나타난 형태의 특징은 전체 윤곽선과 깃·소매모양, 구성선, 여밈, 장식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복식미는 다음과 같다.

표의에서 나타난 A라인은 동양철학에서의 천·지·인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人자 모양<sup>13)</sup>이며, 이러한 선은 형태나 방향에 따라 호소력이 달라 인간의 감정을 수반하고 활력적인 운동력을 느끼게 하며 선을 통하여 인간의 미적인 경험이 표현되었다.<sup>14)</sup> 표의에서 나타나는 풍성하면서도 정돈된 조화의 미가 나타나는 것은 선의 통일감 속에 있으며<sup>15)</sup>, 표의를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형태적 특징을 보였고 이 풍성한 형태감이 당시대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여유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복식미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다.<sup>16)</sup> 또한 표의의 풍성한 형태는 화려함이 가중되어 화려한 미적 표현만이 아니라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어 위신과 체통을 지키기 위한 인격미<sup>17)</sup>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깃모양은 착용자의 개성과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미적 요소이다.

소매의 종류에 따라 전체 실루엣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소매가 넓을수록 위엄있고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좁은 경우 단아한 선의 미가 나타났다. 수구襖이 있는 경우 장식성이 따르며 분리되는 소매는 실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무가 있는 경우에는 표의의 넓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액주음의 무 역시 품의 여분을 주며, 거드랑이 아래 주름을 넓게 잡는 경우 옆선이 붕긋하게 살아날 수 있는 멋이 있다. 도포 뒤에 덧붙인 뒷자락은 멋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기능성과 바람이 불 때 휘날리는 포의 자락에서 엄격한 규격성의 정장의 미가 파괴되는 유동의 미<sup>18)</sup>가 나타났다. 중치막에 나타나는 세자락의 단순 트임은 풍성한 소매 자락과 더불어 유동적인 선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창외·학창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트임은 표의의 활동성과 유동적인 선의 흐름을 나타내며, 무와 주름과 병행하여 관찰한 표의의 형태를 이루는 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장의에서 보이는 소형 당무는 표의를 편안하게 착용하기 위한 역할이었으나 이색(異色) 직물을 사용함으로써 장식적인미를 볼 수 있다. 거들지 또한 다른 표의에서는 보기 드문 외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의 철릭에 나타난 규칙적인 주름은 표의의 형태를 넓혀 주었고 직선의 美와 drape의 美<sup>19)</sup>를 나타내고 있다. 심의, 학창의, 답호 등에서 보여지는 검은 색의 襪장식은 유교적 성격이 강한 엄격함과 심오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심의와 철릭은 상의와 하상이 분리되어 제작된 후 연결된 것으로 하상의 연결된 폭의 넓이에 따라 표의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매듭과 고름은 여밈의 역할을 하며, 보와 흉배는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장식적인 요소로 남자표의에서 장식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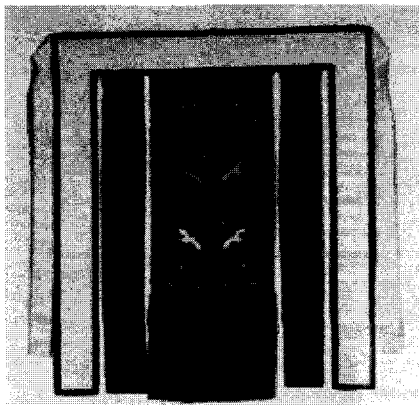


<그림 2> 철릭(탐릉군, 1636~173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소장



<그림 3> 철릭(남양홍씨, 1400~1450년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소장

<그림 3>의 철릭은 소매를 분리시켜주는 매듭과 우측에서 여미게 되어있는 두 쌍의 고름이 색을 달리한 미적 특징을 지녔다. 그리고 계급의 표시를 나타내는 조복의 후수도 남자표의에서 아름다운 장식미를 보여준다. <그림 4>의 후수를 보면 길게 내린 두쌍의 가닥이 한 쌍은 앞에서 여미게 되어있는 형태적 특징, 그리고 문양과 금환 및 청사망 등은 그 형태가 아주 흥미롭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조복의 후수(정원용, 1783~1873)



<그림 5> 조복(심동신, 1850년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소장, 중요민속문화재 제2호

## 2) 색채

남자표의에 사용된 색채의 특징은 백색선호, 은근한 유색, 자·청·적·녹·황 등의 원색사용과 흑백조화, 원색과 흑색의 조화가 있으며, 겹으로 구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중색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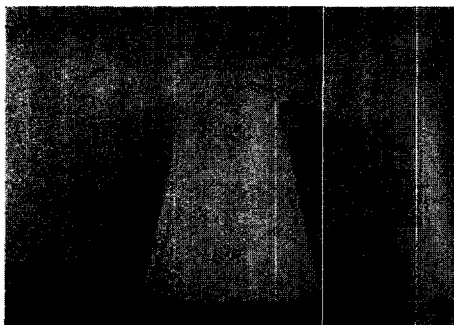
백색은 숭고하고 경건하며 성스러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민족성에서 수용하고 반영된 미적 측면으로 재료자체의 소색의 질소(質素)한 맛이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깊은 맛을 주는 소박하고, 또는 화려하고, 애잔하고 고고하고, 숭고하게 나타난다<sup>20)</sup>고 할 수 있다.

원색은 명도가 높은 색으로 순하고 밝으며 산뜻한<sup>21)</sup> 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맑은 자연에서 생활한 주변 환경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적색은 상색(上色)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선호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색류는 상류색은 아니었으나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대중적인 색이었다. 여기에 청색을 얹게 한 옥색은 한국의 하늘색과 닮은 색으로 한국인들의 자연관을 나타내는 것<sup>22)</sup>으로 폭넓게 수용되어 도포와 두루마기에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품 있는 얇은 색의 즐김은 맑고 순수함을 즐겨한 자연스러운 미적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근한 색채미는 투명하고 청순한 미를 나타내며<sup>23)</sup>, 담백한 조화를 형성하는 복식미를 나타내었다.

<그림 5>의 조복에서 나타난 홍색과 흑색과의 조화는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주며 거기에 흰색의 테두리를 가미하여 장식미를 나타내었다. 심의와 학창의, 그리고 답호에서 나타난 흑백의 조화는 흑색이 지닌 의례적인 감정과 권위적인 성격<sup>24)</sup>이 결부되어 선비가 지녀야 하는 청렴하고 지적이며 고고함마저 느껴지는 복식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림 6>의 상복은 겉의 검은 색 운문사와 안의 붉은 색이 어우러져 어두운 적색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이중색은 얇은 직물을 겹으로 구성된 표의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색채미의 표현이었다. 조복은 적색에 흑색선을 둘러 화려함이 나타났고襟장식에는 흰색의 테두리선을 가미하여 배색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심의와 학창의에서는 흑백조화가 나타나 고고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림 6> 자적용포(의친왕, '920년대)  
오른대순교자기념관소장



<그림 7> 소색무명도포(전박장군, 임란직후)  
충북대 박물관 소장

### 3) 소재

남자표의에 사용된 소재의 특징은 견직물의 애호와 검소한 마·면직물의 사용이었다. 견직물에는 紬·緞·紗·羅·絹 등이 나타났는데 그 미적 특징을 보면 紬는 표면이 영롱하고 투명한 느낌을 주며, 단은 두껍고 광택이 나는 화려한 직물로 <그림 2>의 단은 운보문의 지문이 시문 되어 더욱 화려하고 귀한 느낌을 주고 있다. 紗와 羅는 얇은 직물로 촉각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섬세한 직물은 유연한 선율의 미<sup>25)</sup>를 나타내었으며, 견직물은 착용자의 권위와 품격을 나타내기엔 만족스런 소재였다. 삼베에 표현된 생성감은 직물자체의 표현으로 부각되어 소박하며 소탈한 복식미를 보이며 이러한 소박함은 “기교를 부리지 않은 기교”<sup>26)</sup>가 되어 복식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면이나 삼베가 사용된 표의는 검소하고 청빈한 선비의 정신미를 나타

내주기도 하였다. 이와 대조적인 모시는 섬세하고 투명함이 조선복식의 정갈스러운 아름다움<sup>27)</sup>으로 표현되었다.

### 4) 문양

남자표의에 나타난 문양은 보·홍배에 나타난 문양과 소문(素紋), 그리고 지문(地紋), 운보문·식물문 등이었다. 왕족의 의례복에서 나타난 보를 보면 그들의 신분상징과 인격적인 기품이 표출되어 있으며, 무관과 무관들 역시 홍배에 자신들의 인품을 표현하려는 상징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 7>과 같은 소문의 표의는 담백하며 정갈한미를 추구하여 복식보다는 착용자의 인품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와 같은 지문은 은근하며 자연스런 생성감이 나타나며, 보문의 종교적 상징성에 현실적인 염원으로 인해 착용자의 신분상징과 길상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의 식물문은 군자의 청빈과 고고한 자세나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선비들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 5) 부속품

남성의 대표적인 수식인 관은 각 의례에 따라 격을 갖추어 복식을 완결하기 위해 착용되었다. 따라서 표의에서 나타나는 관식은 예를 갖추기 위함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용도를 나타낸다. 갓은 가볍고 투명한 양상에서 느껴지는 화사함으로 매우 장식적인 의장의 하나이며 이는 차분하여 정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세조대나 광다회는 색채가 정갈하고 밝은 색의 표의와 화사한 색채조화를 이루며 길게 늘어뜨려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율동미를 갖는다.<sup>28)</sup>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나타난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

	외형적 특징	복식미
형태	직선, 사선, 곡선의 통일감	풍성하면서 정돈된 조화미
	풍성한 형태	여유와 자연스러움·인격미·화려함
	뒷자락·무·트임	유동의 미
	주름	직선의 미·drape의 미
	상의하상의 분리법	여유미
	소매	의례미·단아한 선의 미·실용성
	깃	전통미
색채	襪장식·거들지·매듭·고름·흉배·보·후수·당무	장식미·실용성
	백색	소박함·화려함·애잔함·고고함·승고함
	순하고 밝으며 산뜻한 원색	자연미
	은근한 유색	투명하고 청순한 미·차분하고 담백한 조화미
	흑백조화	청렴하고 지적이며 고고함
소재	홍색과 흑색의 조화	화려함
	이중색	독특한 색채미
	주	영롱하고 투명한 느낌
	단	두껍고 광택이 나는 화려함
	라	촉각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한 아름다움
	무명	소박함
문양	삼베	소박함·자연의 아름다움·정신미
	모시	정갈스런 아름다움
	소문	담백하며 정갈한 미
부속품	지문	은은하고 자연스런 미
	문양의 종류	상징성·주술성
	관	완결미·품격미·의례미
	세조대·광다회	울동미·상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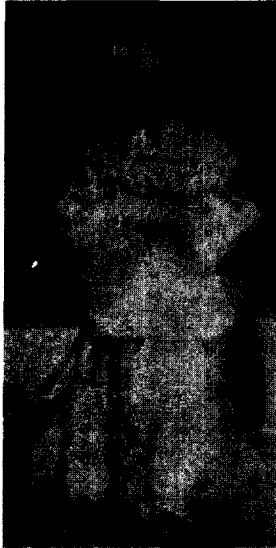
### Ⅲ. 남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남자표의를 활용한 남자 혼례복에 대해 고찰해본 결과, 서양복 디자이너들 보다는 한복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수 또한 적게 나타났다. 그 활용방법을 보면 크게 표의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외형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의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혼례복을 살펴보면, 상복의 형태를 활용한 <그림 8>은 풍성한 형태의 분홍 혼례복으로 둥근 깃의 화문과 전체 길에 기하학문을 은박하였으며 두리소매를 활용하여 수구밑 아래는 2개의 매듭으로 징그었다. 머리에는 은색의 사모에 떨잠과 동일한 느낌의 장식식을 하였다. 화(靴)는 혼례복의 색과 동일한 분홍색으로 일체감을 주면서 빨강 색의 테두리를 아래

와 신목부분에 하였으며 중앙에 흰색의 테두리를 하였다. <그림 9>는 분홍색의 문사를 사용하였으며 학흉배를 부착하였고, 수구 끝을 둥글린 두리소매의 선을 활용하였다. 고름과 사모관대에 문양을 새긴 혜를 신어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두루마기 형태에 보를 활용하여 가슴 앞뒤에 부착하였다. 옥색과 금색의 보가 어우러지고 있으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표의형태에 색채와 모자와 신을 현대적으로 활용하였다.

표의의 형태에 있어 부분적인 외형적 특징을 활용한 혼례복으로 <그림 11>은 연두색의 두루마기 위에 담호를 입히고 금색의 용보를 가슴앞뒤에 붙이고 광대(廣帶)로 뒤에서 여며주었다. 소재는 모시를 사용하였으며 머리에는 쓰지 않았고 혜를 신었다. 표의를 활용한 혼례복에 사용된 색채를 보면



<그림 8> 아름다운 우리옷  
1991년 7월호, p.67



<그림 9> 웨딩tomato  
2000년호, p.95



<그림 10> HANBOK  
2001년 2월호, p.126



<그림 11> 우리옷사랑  
1999년 9월호, p.190

페일톤과 부분적으로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페일톤이 주는 우아함과 고귀함이 혼례복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원색을 가미하는 것은 전통혼례복이 주는 원색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화려함을 첨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된다. 소개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그리고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혼례복의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문양은 부분적으로 쓰였으며 특히 보와 흥배를 활용하여 문양을 새겼다. 문양의 종류는 전통표의에서 나타난 용이나 학 등이 나타났다. 머리에는 주로 사모를 활용하였으며, 대대나 혜·화 등도 나타났다.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는 조화미와 장식미 그리고 유색을 사용한 투명하며 차분하고 담백한 조화미를 나타내었다. 문양에서는 壽福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었으며 현대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현대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혼례복에 활용된 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남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

		외형적 특징	복식미
형태	윤곽선	단령·두루마기	의례미
	소매	두리소매	조화미
	깃	등근깃·반달깃	전통미
	장식	보·흥배	장식미
	실루엣	H·A라인	풍성함·단아함
색채	분홍·옥색·흰색·연두색·연분홍	담백함	
소재	견·모시	정갈함	
문양	직물문	화문·수복문·기하학문	현대미
	흉배·보	용·학	상징미
	기법	금박·은박·지문·자수	장식미
부속품	사모·화·혜·대대	완결미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고찰해 본 조선시대 남자표의와 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형태는 직선과 곡선, 사선 등의 선의 흐름과 소매모양, 소매구성법, 깃, 그리고 상의하상의 연결방법, 앞뒤길이차, 주름과 트임, 무와 뒷자락,

선장식, 고름, 매듭, 거들지, 흉배 등으로 나타났다. 색채는 표의에는 자·청·황·적·백·흑색의 밝고 순수한 원색과 중간 톤의 담백한 유색을 사용하였으며, 독특한 이중색과 흑백조화, 흑색과 원색과의 조화가 나타났다. 소재는 신분과 권력의 과시로 주로 견직물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마나 면직물 등의 검소한 소재를 사용하여 유학자로서의 깊이 있고 심오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문양은 문양이 없는 소문이나 지문이 대부분으로 지문의 종류로는 운문·보문·식물문 등이 쓰였으며 보와 흉배에는 동물문이 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모와 대, 화, 혜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남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는 자연미를 토대로 전체 실루엣이 조화되면서 유동의 미와 장식미가 나타났으며 신분상징에 다른 인격미, 의례성, 상징성과 길상적인 우의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선비의 정신을 표현하는 정갈스러운 아름다움과 담백함이 나타났다.

셋째, 현대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는 풍성한 실루엣에 집중되며 표의의 전체 형태의 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혼례복인 단령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전통혼례복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따르면 많은 형태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 형태에만 집중하여 혼례복을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예를 들면 철릭에서 보여지는 주름과 액주음포의 주름 등은 우아함과 세련미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혼례복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폭으로 이어진 裳의 형태를 분리시켜서 디자인하거나 상의하상의 비율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이다. 또한 장의에서 나타난 거들지나 심의의 수구襟 등은 남자혼례복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외형적 요소로 이를 활용하여 현대감각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도포의 뒷자락은 트임과 더불어 혼례복에서 유동적인 선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본다면 좋은 형태적 요소가 되리라 생각된다. 얼굴가까이에 있는 것은 둥근깃이나 반달깃에만

국한되지 말고 착용자의 개성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흉배와 보, 조복에서 나타난 폐슬과襟장식, 그리고襟에 나타난 異色의 테두리와 후수 등을 혼례복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색채는 전통표의의 색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색이 음양오행설에 의한 색의 상징성과 신분체계에 따른 복색뿐만 아니라 표의의 용도와 혼례복이라는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혼례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표의에 사용된 색채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표의가 의례복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기에 혼례복에 사용해도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천연염색으로 추출된 색상을 사용한다면 더욱 한국적인 미가 가미될 것이다. 소재는 주소재가 견직물로 이는 견직물의 촉각적인 느낌과 외형상 유연한 선의 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견직물은 현대혼례복에 활용되었을 때 한국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재이다. 다만 편중된 견직물의 사용으로 한정된 표현을 갖기 쉬우므로 같은 소재라도 다양한 느낌을 가진 신소재개발의 활용도 요구된다. 현재 금직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견직물뿐만 아니라 모시가 갖고 있는 섬세하고 투명함에서 느껴지는 정갈스러운 아름다움은 혼례복의 이미지에 적합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적인 미가 더욱 느껴질 것이다. 문양은 전통표의에 나타난 종류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지만 기법에서는 남자표의에 나타나지 않았던 금박과 은박이 현대혼례복에서 나타났다. 혼례복이라는 의례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현대적인 문양기법을 사용한다면 혼례복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속품으로는 사모와 화·혜 그리고 각대 등이었다. 사모가 많이 활용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므로 전통표의에 착용된 관모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사용한다면 의례미가 더욱 가미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는 의례미·조화미·전통미·장식미·풍성함·담백함·고귀함·상징미·완결미 등과 현대미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연미를 첨가시켜 혼례복을 디자인 한다 면 한국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혼례복은 앞으로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한국패션 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복식이다. 혼례복을 창조하는데 있어 조선시대 남자표의의 복식미를 토대로 외형적 특징을 다각도로 접근해 한국적 미를 살린 혼례복이 개발된다면 국제화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전통복식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의를 활용하는 혼례복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여자표의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한 실제 디자인기획은 후속과제로 하고자 한다.

- 21) 金永淑,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23.
- 22) 백기수, 미학서설,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158.
- 23) 김영자, 앞의 책, p.129.
- 24) 임영방, 생활미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p.174.
- 25) 금기숙, 앞의 책, p.130.
- 26) 고유섭, 우리의 미술과 공예, 열화당, 1977, p.87.
- 27) 금기숙,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14호, 한국복식학회, 1990. 5, p.174.
- 28) 금기숙, 앞의 책, pp.133-138.

### 참고문헌

- 1) 고복남, 한국 전통복식사 연구, 서울:일조각, 1986, p.188.
- 2)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5, p.25.
- 3) 이주영, 조선시대 직령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6.
- 4)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247.
- 5) 조효순, 조선시대 심의 구성식론-박규수의 외복고를 중심으로-, 복식27호, 한국복식학회, 1996. 2, pp.35-38.
- 6) 홍계강묘연록사연화문철릭(1450년대), 단국대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소장.
- 7) 김병국철릭(1900년대), 온양민속박물관소장.  
윤용렬복청철릭(1840~1911), 연세대박물관소장.  
창덕궁유물청색철릭(조선후기), 창덕궁소장.
- 8)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98, p.272.
- 9) 의친왕, 오륜대순교자기념관 소장.
- 10) 착장자미상, 국립민속박물관소장.
- 11) 고종, 세종대박물관소장.  
영친왕, 동경국립박물관소장.
- 12) 착장자미상, 국립민속박물관소장.
- 13) 최성자, 한국의 미 선/색/형, 서울: 지식산업사, 1995, p.13.
- 14)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p.68.
- 15) 위의 책, p.74.
- 16) 금기숙, 앞의 책, pp.25-33.
- 17) 위의 책, p.160.
- 18) 김영자, 앞의 책, p.75.
- 19) 최경진, 한복의 주름에 관한 연구, 복식 16호, 한국복식학회, 1991. 5, p.98.
- 20) 김영자, 앞의 책, p.123.